

선생님과 수녀 '하모니 콘서트' 힐링

"아빠 우리 뭐 먹고 살아?"라는 딸의 걱정이 이어지는 순간에도 타인을 위해 사재를 털어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좁은 열 평짜리 자택에서 학교 부적을 청소년 여덟 명과 동고동락하고, 직접 대안학교를 세워 청소년들의 바보서기에 이바지한 교육자 박주정(광주진남중학교장)의 일화는 우리 시대에 귀감이 된다.

'박주정과 이해인 수녀의 하모니' 극단 코스모스, 22일 예술의전당 생명·사랑·시 이야기로 희망 전하는



박주정 교장



이해인 수녀

우직하게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경험을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풀어내며 화제를 모은 박 교장이 이해인 수녀와 함께 오는 22일(오후 2시, 6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박주정과 이해인 수녀의 하모니'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극단 코스모스(대표 박석인)가 주최하며 토크콘서트 중간마다 청소년들의 문제상황을 연극으로 표현해 곁들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갑작스럽게 임신부가 된 여고생 '빛나',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두식', 따돌림과 학업 사이에서 생을 마감하려는 '진수'를 그려내는 세 연극은 학교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소통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우울지수와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청소년 문제 해결의 커다란 한 축인 '학부모'에게 호소하고 함께 역할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박 교장은 국내 최초로 대안학교 '용연학교'를 설립했으며, 사비를 들여 10년간 707명의 학교 부적응 학생을 교육해 왔다.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했으며 위기학생 신속대응팀인 '부르미'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현장의 일선에 자리해 왔다.

박 교장에 따르면 이번 토크콘서트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 아이들이 놓인 위기상황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내 자녀는 안전한가? 부모는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주제를 통해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청소년 자살문제 등 뜨거운 감자들을 다

토크콘서트를 마련한 이유를 묻자 박 교장은 "코로나 3년간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 의사를

를 예정이다.

그는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을 취하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라며 "이번 강의는 교과서에 담긴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10년간 공동학급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다. 용연학교 이전에도 4000여명의 가나무 농장과 폐가를 임대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던 경험을 관객들과 공유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8월 초에는 박 교장의 삶과 교육철학을 담은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도 출간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에서 관련 내용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연 끝에는 사랑에 관한 시편들로 알려진 이해인 수녀의 강 및 출판기념회도 예정돼 있다. 20분 남짓 관객들을 만나 지난 6월 10일 출간한 '인생의 열 가지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자 사인회를 진행한다.

이번 이 수녀는 생명과 사랑, 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 희망의 내용을 전한다.. 공연을 주최하는 극단 코스모스의 박석인 대표는 "스위스의 교육자 페스탈로치가 그러했듯, 박주정은 가난한 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며 "관객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청소년 문제를 극복하는데 의미있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티켓은 예스24, 티켓링크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현숙 작 '그여자'

따로 또 같이 '경계의 아리아'

이기원·전현숙 작가 8월31일까지 화순 운주사문화관

사람에게는 누구나 내밀한 삶의 경계가 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한 토대일 수 있다.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경계를 '경계'로 이면의 세상과 저편의 세상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더러 그 경계를 통해 성숙하기도 하고 이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이기원 작 '生死一如'

경계를 모티브로 전시회를 열고 있는 두 작가가 있다. 화순 운주사문화관(제2, 3전시실)에서 8월 31일까지 열리고 있는 이기원, 전현숙 작가가 주인공.

'경계의 아리아'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따로 또 같이'의 의미를 환기한다. 통상 '아리아'는 반주에 맞춰 부르는 독창 또는 이중창을 뜻한다. 두 작가의 작업이 '치열한 삶의 경계에서 벗어날 결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두 작가는 각각 25점씩 모두 50점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운주사문화관의 개관 기념전이러는데 있다. 그동안 이곳은 천불전탐사진문화관으로 사진 관련 전시를 해왔다. 그러다 화순군에서 1층에 미디어아트 전용전시관을 마련하고, 전체 공간 이름을 운주사문화관으로 바꾼 것. 현재 1층에서는 미디어아트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유산이었다. 특히 거대한 팜배마위(지름 5.1m, 높이 6.7m)는 선사시대의 기술과 예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명작이다.

공명 운주사문화관 큐레이터는 "작가들의 삶에 내재된 초상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여 발견된 초상에 공감하고 치유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 내면의 초상을 만나는 '경계의 아리아'를 통해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무등갤러리, 갤러리이음 등 총 21회 개인전과 예술의전당, 광주시립미술관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남도조각회, 전남조각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원조현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이기원 작가는 40여 년 이상 평면과 입체를 넘나들며 작품세계를 열어왔다. 이번에 이 작가는 고인돌을 주제로 한 작품에 초점을 맞췄다. 고인돌은 능주로 삶의 근간을 옮겨 온 그가 자주 접했

전현숙 작가는 크로키로 출발해 탄탄한 평면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평면 작업을 캐릭터로 옮겨온 것으로 전시 중앙에 있는 작품은 독특한 아우라를 발한다. 삶의 고난과 역경, 이상적인 삶에 대한 탐구 등 깊은 철학적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전 작가는 전남대 미술대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2019 광주비엔날레기념초대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한·중 국제미술교류전, 광주시립미술관 파리 국제 교류전 등 다수 기획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The광대 창작연희극 '당골포차'에 초대합니다 22일 남도소리올림터

경쟁사회에 내몰린 '변개탄'은 사회생활의 달인도, 훌륭한 스펙도 갖고 있지 않다. 계속되는 패배로 지쳐있던 한때, 당골포차의 주인 '환웅'이 나타나 돌고 도는 세상사의 만사형통 이치를 말하는 데



창작연희극 '당골포차'를 공연하는 모습.

<전남문화재단 제공>

연희집단 The광대가 창작연희극 '당골포차'를 오는 22일 오후 4시 남도소리올림터에서 연다. 2018년부터 진행했던 이번 공연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전통공연예술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됐다.

기도 가미돼 다채로운 사운드를 선사한다. 광대들이 관객들 사이로 다가와 해학적인 재담을 이어가는 것도 공연의 묘미. 작품은 직장인의 애환, 돈 등과 같은 현대인들의 갈등과 여러 문제

공연은 우리 민족 고유의 신화인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삼는다. 지친 '변개탄'은 환웅의 초대를 받고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인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광대들은 관객에게 술잔을 건네며 지친 삶을 위로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인 '바나놀이'부터 '땅놀이기' 등의 연희를 보는 재미도 기대된다. 대금, 소금, 북, 장구의 장단에 심뿔, 일렉베이스 같은 서양악

를 다룬다. 전석 무료, 선착순.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연장운영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안나 작가와 함께하는 치유의 인문학

광주트라우마센터, 25일 전일빌딩245

전안나는 '1천 권 독서법', '초등 하루 한 권 책방 독서법' 등으로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다. 500여 차례 강단에 섰던 강사이며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그동안 독서와 글쓰기 분야의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통을 해왔지만 그녀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다.

모르는 고아였고, 입양되어서도 여섯 살 때까지 양부모의 호적에 오르지 못한 무적자였으며, 20여 년간 가정 폭력을 당한 아동 학대 피해자였습니다."

광주트라우마센터 치유의 인문학으로 전안나 작가가 독자들을 만난다. 오는 25일 오후 7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 강당.

'태어나서 죄송합니다'(가디언)는 논문로 가득했던 어린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몰랐던' 그는 답을 찾기 위해 그동안 읽었던 책을 독서 에세이로 엮어 희망을 전하고 있다.

전 작가는 책을 통해 삶의 역경을 극복해왔다. 초등학교 시절, 도피처 삼아 읽기 시작한 책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삶을 구원해 준 동아줄이 된 것. 그는 그동안 읽은 책 중에서 큰 영향과 깨달음, 위로를 준 서른 권을 골라 '태어나서 죄송합니다'에서 소개하고 있다. 책에는 '칼자국', '탈과 6편

"사실 저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스', '나를레온 힐 성공의 법칙' 등 다양한 책들과 독서에 대한 단상 등이 소개돼 있다.

작가는 "이 글로 누군가를 위로하겠다거나,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당신도 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꿈꾸는 우리들' 참가자 모집

청소년 성평등 진로교육 선착순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 이하 재단)이 2023년 청소년 성평등진로교육 지원사업 '꿈꾸는 우리들'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말일까지 30명 이내 선착순 마감.

야의 실습수업 '메디컬', 영상크리에이터와 프로파일링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전문직', 바리스타나 쇼콜라티에를 공부하는 '푸드' 분야. 특수분장을 배우고 조영작품을 제작하는 '문화예술' 분야가 예정돼 있다.

이번 교육은 중학생들이 직업별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해 균형 잡힌 직업선택 관점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재단 관계자는 "작년에는 이론 수업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체험키트를 추가해 풍부하게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중학생 시기부터 성평등적 관점 아래 직업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 여섯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참가신청하면 된다. 공정무역과 친환경 화장품에 대해 체험하는 'EDS 교육', 메카트로닉스와 인공지능, 전체·전문 분야를 탐구하는 '4차산업', (지)의학·약학 분

교육비 무료.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지원하면 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외운 섬여행

낙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 + 백도

광주-낙동항 셔틀 주말 확성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낙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낙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낙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낙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낙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